

“미래의 친환경 비즈니스 전문가를 꿈꾼다면...”
테라사이클,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보도자료 이미지=테라사이클 제공>

글로벌 재활용 컨설팅 기업 테라사이클(Terracycle)이 미래세대의 글로벌 친환경 비즈니스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인 'Terracycle Fellowship Program 2020'을 진행한다.

테라사이클은 폐기물 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재활용 컨설팅 기업으로 현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21 개국에서 주요 소비재 및 제조 기업과 협업해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다. 테라사이클 코리아는 지난 2017 년 국내에 출범해 한국 P&G, 아모레퍼시픽, LG 유플러스 등의 다수 기업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재활용 솔루션을 제시하고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테라사이클 코리아는 이번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글로벌 친환경 사업 전문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학생에게는 2 주간 기업의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설계해 보고, 나아가 캠페인 아이디어를 기획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지원자격은 환경 이슈에 관심이 있는 국내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오는 7 월 31 일까지 테라사이클 메일 주소로(teracycle.kr@gmail.com)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는 테라사이클 본사의 검토 및 승인 과정을 거쳐 친환경 캠페인으로 실현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완수한 전원에게 인턴십 수료증 발급은 물론 우수 학생에게는 테라사이클의 인재 추천서가 별도로 제공될 예정이다.

테라사이클코리아 이지훈 총괄은 “테라사이클이 우리나라에서 자원순환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많은 이들이 환경에 대해 이야기 하지만 여전히 환경보호를 위한 일은 어렵고, 나와는 먼 이야기로 생각하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이번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은 친환경 비즈니스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더 많은 글로벌 친환경 비즈니스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첫 걸음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끝>

###

About TerraCycle

테라사이클은 전 세계가 직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폐기물 제로화에 도전하는 글로벌 재활용 컨설팅 기업이다. 한국을 포함한 21 개국에 진출해 재활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미래를 위한 환경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테라사이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s://www.terracycle.com/k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